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벤투.



16초만에 A매치 역대 최단시간 시간 골을 기록한 황희찬 선수와 기뻐하는 축구대표팀. 연합뉴스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완공

한국마사회 오늘 개장식 내년부터 민간 개방 계획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가 19일 '제주목장 전천후 실내언덕주' 개장식을 갖는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목장 내 실내언덕주로는 2018년부터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총 면적 14만㎡에 860m의 실내주도로와 526m의 진입로로 구성된 경주마 육성시설로 지난 9월 완공된 전라북도 장수군의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보다 규모가 크다. 190억원을 들여 약 2년간의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번 실내언덕주로는 기후에 상관없이 경주마를

훈련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인프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경마산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내언덕주로는 전무했다. 실내언덕주로를 활용하면 연간 30% 이상 훈련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설은 최종 점검이 끝나면 내년부터 민간 경주마 생산능가에도 개방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 민간 경주마 생산능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말의 고장 제주를 대표하는 전천후 선진 훈련시설이 완비되어 제주산 경주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등 말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선휘기자 sunny@ihalla.com



19일 개장식을 개최하는 제주목장 내 국내 최대 경주마 육성시설. 연합뉴스

빌드업·조직력 끌어 올리기 등 절실

유럽 원정 '4득점 4실점' 벤투호의 향후 과제 내년 3월 카타르 월드컵 2차예선 앞뒤 고민

벤투호가 1년 만에 나선 두 차례 원정 A매치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는 불운 속에 '빌드업 조직력 끌어 올리기'라는 절실한 과제를 남겼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스트리아에서 펼쳐진 11월 원정 A매치 2경기에서 1승 1패(멕시코 2-3패·카타르 2-1승)의 성적을 받아들이었다. 2경기에서 4골을 넣었지만 실점 역시 4골이나 허용하며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벤투호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브라질과 원정

평가전 이후 1년 만에 K리그와 해외 파가 모두 모이는 귀중한 기회였다. 소집 때부터 핵심 수비수들이 합류하지 못한 데다 오른쪽 풀백 김문환(부산)은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벤투호의 수비라인은 약점을 드러냈다. 벤투 감독은 두 차례 평가전에서 중앙 수비수로 '신예' 원두재(울산)와 '베테랑' 권경원(상주)을 모두 기용했다. 좌우 측면 수비라인은 이주용(전북), 김태환(울산), 윤종규(서울)만 투입됐고, 주전 골키퍼 조현우(울산)

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구성된(대구)이 모두 출전하는 등 기존의 수비 호흡을 끌어내기 어려웠다. 수비조직력이 떨어지다 보니 벤투호의 빌드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표팀의 빌드업 과정에 익숙지 못했던 원두재와 권경원은 잦은 패스 실수로 실점 위기를 자초했다. 벤투 감독은 멕시코를 상대로 독심있게 빌드업을 전후반 내내 시도했지만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2-3 역전패를 떠안았다. 이 때문에 벤투 감독의 '빌드업 고집'은 팬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두 번째 평가전에서도 벤투 감독은 빌드업을 앞세워 공격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자기 진영을 먼저 지키고 역습에 나선 카타르의 전술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쳐야만 했다. 벤투 감독은 후반에 K리그 MVP에 빛나는 손준호(전북)를 교체 멤버로 투입하며 전술에 변화를 줬다. 중앙 미드필더 손준호의 끝에서 최전방 공격진을 향한 패스로 카타르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빌드업과 톱패스가 적절하게 분배되면서 벤투호의 공격 과정은 단순함과 느린 공격을 벗어나 속도감을 붙일 수 있었다. 2경기를 치르는 동안 내준 4골 가운데 2골은 빌드업 과정에서 벌어진 패스 실수로 자초한 실점이었다. 내년 3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빌드업과 톱패스의 적절한 조화는 벤투호의 큰 과제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일본 야구 한신, 로하스에 '눈독'

새 외국인 선수 후보에 포함 한국프로야구를 호령한 타자 벨 로하스 주니어(Kt wiz)와 제리 샌즈(전 키움 히어로즈)가 한화합을 먹을까. 샌즈의 소속팀인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가 로하스에게 눈독을 들인다는 보도가 18일 나왔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은 한신이 올해 KBO리그 홈런(47개), 타점(135개) 2관왕에 오른 로하스를 새 외국인 선수 계약 후보에 올렸다고 인터넷 기사에서 전했다. 한국에서 4년을 뒀던 로하스는 통산 타율 0.321에 홈런 132개, 타점 409개를 남겼다.

스포츠닛폰은 미국프로야구 마이너 리그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아 새로 계약할 외국인 선수 후보군에 제한적이라며 스위치타터로 정확성과 파워를 겸비한 로하스의 타격이 한신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KBO리그 타점 1위(113개), 장타율 3위(0.543), 홈런 4위(28개)에 오른 샌즈는 한신과 계약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동안 적응을 못 했지만 센트럴리그 홈런 공동 9위(19개), 타점 11위(64개)에 올라 연착륙에 성공했다. 샌즈는 내년에도 한신 유니폼을 계속해서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LPGA투어 복귀 신고, 세계 1위 고진영

'실전 감각 회복이 과제' 올해 처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에 나서는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이 짧은 거리 샷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실전 감각 회복이 과제라고 밝혔다. 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 70)에서 개막하는 LPGA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에 나서는 고진영은 1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1년 만에 미국 언론과 만났다. 고진영은 작년 11월 25일 끝난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미국에 코로나19가 번지자 고진영은 줄곧 한국에 머물렀다. 고진영은 "작년에는 20차례 넘는 경기를 치렀지만, 올해는 오직 5경기 밖에 뛰지 않았다"면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쉽지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윙 코치를 바꾸고 스윙을 손보고 있는 고진영은 "크게 바꾼 건 없다. 100m 이내에서 치는 샷의 일관성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말 도졌던 발목 부상도 다 나았다는 고진영은 "LPGA투어가 그리웠다. 다시 LPGA투어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제주영주고등학교 임수지·이효민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돼

제주 영주고등학교(교장 김인기) 임수지(3학년), 이효민(1학년)이 2020년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됐다. 임수지는 1학년 때 전국체전 도로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해 사이클계를 놀라게 했고 2학년 때는 도로독주경기에서 2위에 올랐다. 지난 6월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KBS 전국사이클 대회 포인트경기에서도 2위에 입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효민도 영주고 사이클의 전망 밝게 해주고 있다. 이효민은 KBS 전국사이클대회 스프린트 3위, ILAP경



이효민 임수지 기 3위에 잇따라 입상했다. 영주고 측은 "두 학생의 국가대표 선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당찬 질주를 계속할 두 학생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신선휘기자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오늘의 운세 19일. A daily horoscope section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predictions. Includes a small image of a 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fortune teller.